

# 자료의 민주주의, 공화국의 문헌들

## -북한문학 연구자의 지극히 사적인 자료 탐색기

김민선(연세대)

### 1. <로동신문>을 일반자료라 하면 큰일나는 병 걸림



"노동신문 본다고 빨갱이 되나"  
- 2025년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 
- <로동신문> 일반자료화 추진

찍어주세요



그러나 여전한 불법 유해 정보(사이트) 차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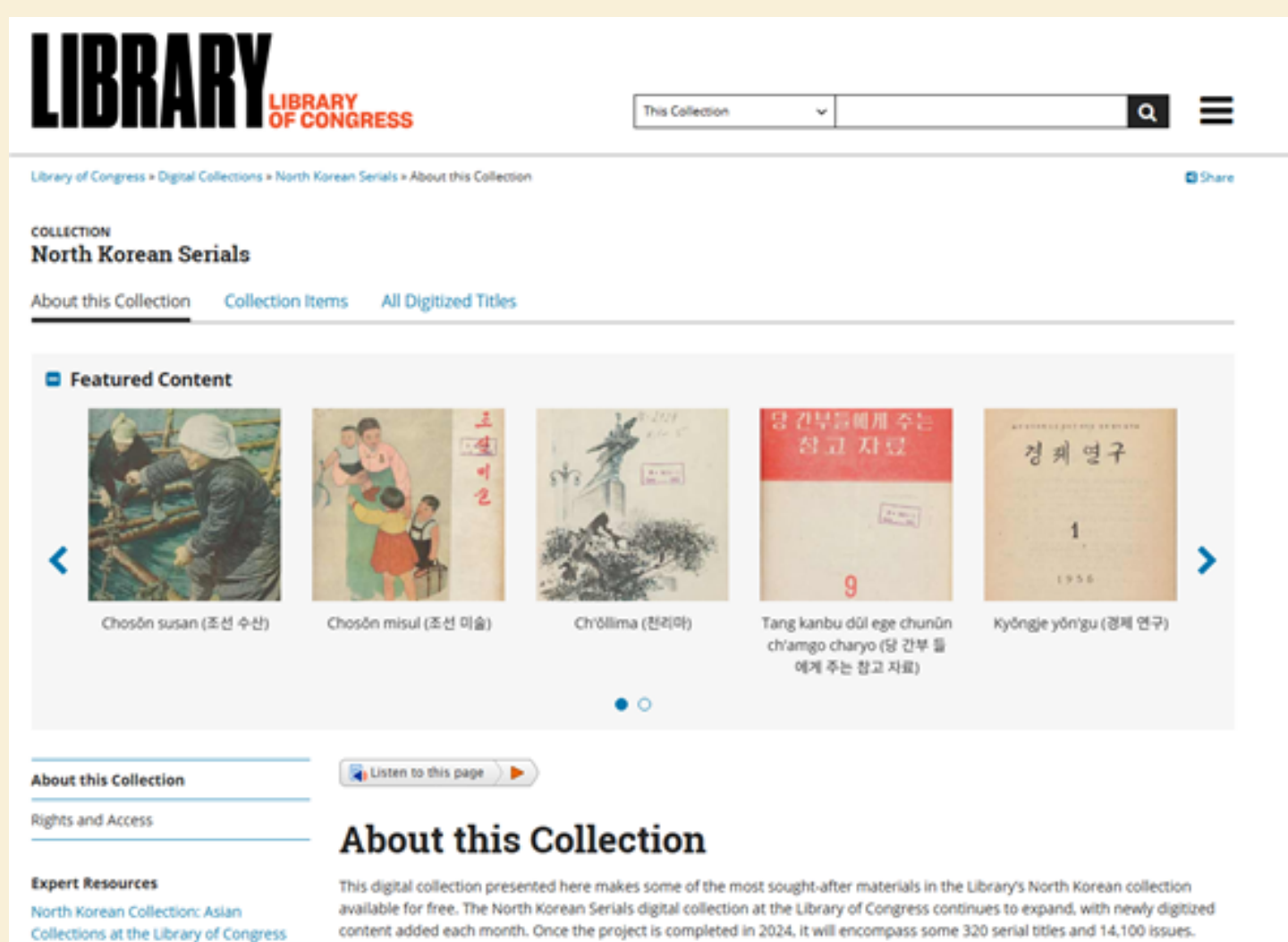
**북한문학 연구자를 위한 자료 열람 환경은 과연 얼마나 나아졌을까?**

### 2. 동무는 광화문을 기억하는가?

- 전환점: 1988년 해금과 (구)'북한 및 공산권 자료센터' 개관(1989)
- 광화문 우체국 6층에서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5층으로 이사(2009)
- 서약서 및 기관장 추천서 제출(1989~2021)
- 서초역에서 도서관까지 근조화환 길을 걸으며 북한문학 공부하기



### 3. 인터넷의 세계에 진출했다고 합니다.



-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검색 기능
- NARA 노획문서 온라인 열람:국립중앙도서관, 국사편찬위원회 연계
- 미 의회 도서관 북한 정기간행물(1948~1967) 온라인 열람
- 조선언론정보기지 개설(2006) <조선문학>, <아동문학> 등의 최신 자료 원문 구독자 제공

### 4. 빅브라더 스틸 왓칭 유

- <로동신문>을 제외한 <조선문학>, <청년문학> 등의 문학잡지와 신간 소설책 등은 여전히 특수자료
- 센터 내 데이터베이스 열람시 로그인 후, 인쇄 및 열람 목록에 서명
- 3개월 늦게 도착하는 신간 기다리는 나 VS 온라인에서 실시간에 가깝게 열람하는 해외연구자들
- 코로나 기간 약 1년 반 동안 2019년 잡지를 곱씹었던 이른바 '북한문학 자료 고난의 행군'
- 특수자료이지만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자료들

### 5. 한국문학 연구의 양양을 위하여

- 오래된 냉전 이념 속에서 취급되는 북한의 문헌들
- 북한 '문학연구자'가 아니라 '북한' 문학연구자
- 여전히 남는 의문과 불안:

**"소수가 보는 자료, 굳이 구독할 필요가 있을까?"**

**자료의 자본주의를 예감하면서도,  
자료의 민주주의를 희망하기**



★ 한국문학 연구의 양양을 위하여 ★